

출판발전의 참뜻은 읽는 사회의 지향

이종국 | 해천대 전자출판과 교수

새 천년의 진입을 앞둔 시점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뉴 밀레니엄 시대에서의 무엇무엇' 하는 식으로 수많은 슬로건들이 곳곳에 내걸렸던 것 같다. 그것은 거대한 물결로 번졌다. 출판제도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민·관 할 것 없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보인다 하면 익숙한 대명사들을 앞머리에 얹어 반추와 성찰, 각오와 희망의 설계로 넘쳐 있는 듯했다. 언론과 출판 관련 매체들에서도 그런 주제들을 사뭇 뜨겁게 다루고 있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는가?

건트 하면 떠올리는 것이 고질적 화두인 출판의 위기에 관한 문제였고, 그에 따른 극복에 관한 사안들이었다. 이와 함께 늘 빈약한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도서관정책에 관한 문제, 독서풍토 조성에 관한 것, 또 전근대적인 출판유통에 대한 개선과제들도 습관처럼 되풀이되곤 했다. 따지고 보면 이런 문제들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었다.

새로운 세기 벽두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말머리'는 e-book에 관한 서설들이었다. 온 세상이 금세 전자책으로 뒤덮여질 듯이, e-book을 향한 손짓들은 정말 대단했다. 그러면서 신앙처럼 끌어대곤 했던, 컴퓨터 기술의 혁명적 사이클을 정의한 '무어의 법칙' 과 전자책이

2010년까지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된다는 앤더슨 컨설팅의 예단에 흠뻑 도취해 있었다. 사람들은 《국부론》이 한권의 책이었다는 사실을 내쳐버리기라도 한 듯 '영웅적인 장사꾼' 빌 게이츠에 열광했다. 마치 그의 방식이 오늘과 내일의 '읽' 전부를 해결해 줄 것인 양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것처럼 가열찬 기세는 어느새 조용해졌다.

우리는 여기서 짐짓 원리성의 문제를 생각해보게 된다. 읽는 것이 먼저인가 기술이 먼저인가에 관한 상식적 판단이 그것이다. 일본사람들이 연중 17권을 읽을 때, 우리는 9.3권 정도에 그쳤다. 또 하버드대의 연간 도서관입비(275억원)보다 턱없이 모자란 것이 우리의 전체 공공도서관 예산(148억원)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수단개혁을 지향하는 심리는 '세계제일' 이었다. 요컨대 e-book과 같은 첨단적인 열독기가 갖춰져야만 더 잘 읽게 된다는 뜻인지, 그래야만 독서환경과 출판문화의 방법적 성취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인지 도대체 본말이 맞지 않다. 읽고 궁구하면 좀더 우월한 '책의 문화' 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임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읽기는 이미 지적 성취를 전제로 한 삶의 방식이며, 그 자체가 '기술' 을 생산하는 적극적인 길잡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책의 진화에 따른 매우 평범한 논리를 짚어낼 수 있다. 요컨대 책의 존재는 그 수단으로서의 모형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읽혀지는 대상이어야만 제몫을 감당하게 된다는 엄연성의 확인이다. 새로운 열독기에 힘입은 출판산업의 발전적 추구라는 것도, 읽는 습관이 홀대당한다면 그 어떤 성취도 기대할 수 없다는 평범한 발견인 것이다.

송서이념이 유달리 강했던 옛사람들은 "단지 아홉 이랑의 폐기밭과 토담벽 가득 채운 책 한 방이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고 했다. 《용재총화》에 나오는 가난한 선비의 적바림이다. 해마다 3만여종의 책을 쏟아내는 나라에 살면서도, 왜 책읽기는 늘 뒤쳐져 있는가. ■

통권 제314호 | 2001년 12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박천홍

기자 강성민 김장근

차정신 박옥순

사진 김경록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 안지미

박기아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 · 정기구독문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 수협 · 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일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 - 01 - 0219 - 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 - 6

716 - 5616~9, 716 - 5621~3